

한우자조금, '사랑의 한우 나눔'행사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 12월 23일 한우114할인몰에서 진행된 '1 Promise 한우' 이벤트를 통해 누적된 적립금을 바탕으로 '사랑의 한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한우자조금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베다니마을에 20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기부했다.

전달된 한우고기는 베다니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구이용과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한우 부위를 맛 볼 수 있게끔 제공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서정훈 부장은 "이번 나눔행사는 한우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의 이벤트 참여로 함께 이뤄낸 것이라 더 뜻깊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 Promise 한우' 이벤트는 한우114할인몰에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매일 약속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사항을 인증샷으로 찍어 이벤트 페이지에 올린 참여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원의 적립금이 쌓이는 기부방식이다.

라이프뉴스 김세정 기자 [2015. 12. 28]

한돈자조금, 건강한돈 페스티벌 개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겨울철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한 '따뜻한돈 건강한돈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대표 관광지인 스키장에서 스키어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돈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돈 소비 촉진을 통해 한돈 농가에도 직접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돈자조금은 스키장 등 겨울철 관

광지에서 온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한돈 요리를 선보였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한돈 불고기와 한돈 본래순대 철판볶음 등 한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돈 레시피북을 제공해 여행지에서 보다 간편하게 한돈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손쉬운 요리법도 소개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에게 한돈의 올바른 정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이벤트 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행사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컬링게임,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무릎담요, 핫팩 등 다채로운 기념품도 함께 제공했다.

라이브뉴스 김세정 기자 [2016. 01. 15]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최근 차량부착용 K-MILK스티커<사진> 1만장을 제작해 회원농가 및 관계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차량부착용 스티커에는 K-MILK 인증마크와 함께 우유 및 유제품 구입 시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상철 낙농육우협회부장은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 및 유제품에 부여되는 K-MILK의 소비자 홍보를 위해 회원농가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게 됐다. 1만대의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가 K-MILK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6. 01. 29]

낙육협 K-MILK 차량부착용 스티커 1만장 제작 회원농가에 배부



낙농육우협회가 K-MILK홍보를 위해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2015 전국육계·종계인 지도자대회 개최



닭고기 과잉생산 및 수입량 확대 등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정부의 규제 강화, 계열화 업체들의 직영화 등 육계·종계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계 감축을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육계·종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9~10일 양일간 대전시 소재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전국 육계·종계인 지도자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현재 계열업체들은 과도한 시설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닭고기 산업의 과잉생산과 치킨게임을 일으켜 사업을 망치고 있다"면서 "계열업체는 자체적으로 수급조절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계열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계육 냉동, 병아리 랜더링은 보상이 전제된 단기적인 대책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회장은 "계열사들은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에 대한 생각조차 안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농가들의 주도하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닭고기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농가들에게도 △농장단위 사육밀도 하향 △신규진입 및 증설 금지 선행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농장단위종계자율감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지도자 대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진 축산관측실 연구원의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시작으로 △닭고기자조금 사업 필요성과 추진방향(심순택 닭고기자조금위원장) △육계 정책방향(김영민 농축산부사무관) △닭고기산업 발전방안(이홍재 양계협회부회장)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종계산업 제안(연진희 양계협회부회장)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농식품부, '도시양봉사업' 추진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시민 여가 체험, 학습활동 등과 병행해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양봉사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양봉사육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내달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 지자체 선정 시 가급적 연계해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지역 내 선도양봉농가(시·군당 4명)를 선정하고 사업 참여 도시민(선도양봉농가 1명당 도시민 5명)을 대상으로 5개월(월 2회 방문)동안 벌 관리, 벌꿀 생산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한다.

도시양봉사업에 참여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는 벌통 2군을 지원(보조 20만원, 자담 20만원)하고 선도 양봉농가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도시양봉사업 관리 및 정보 공유 프로그램(앱)을 개발(이달 중)해 도시민과 선도양봉농가의 교육내용, 벌통관리 상황 등을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양봉사업을 통해 도

시민의 양봉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퇴직 및 노후 도시민의 부업 소득원 창출(1군당 생산량 15~20kg, 소비자가격 15~20천원/kg)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벌 사육을 통해 자연과 농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신문 이은용 기자 [2016. 01. 05]



훈제오리스프링롤